



TOKYO PACK 2000

장정화 / (사)한국포장협회

우리가 해외의 전시회를 참관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마도 선진 포장산업의 현황과 신기술을 배우기 위함일 것이다. 그런 면에서 지난 10월 3일부터 7일까지 일본 국제전시장 빅사이트홀에서 열린 '동경국제포장전'도 예외는 아니다.

세계3대 포장전시회 중 하나인 도쿄팩이 세계적인 전시회이기도 하지만 문화와 생활 관습이 비슷하고 거리가 가장 가까운 일본에서 개최된 이유이기도 해서인지 이번 전시회 또한 우리나라 포장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가 속에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규모면에서는 거품경제가 사라지면서 전시면적이나 출품업체수가 예년에 비해 적은 25,000㎡의 면적에 29개국에서 556개사가 2,945부스를 전시해 매회 축소된다는 느낌이지만 출품분야의 면면을 살펴보면 포장재료 29.6%, 포장기계 26.6% 포장가공기계 4.8%, 식품기계 7.0%, 포장관련기재 17.1%, MH·물류기기 5.2%, 프레스·PR·기타가 9.7% 등 포장관련 분야에서 골고루 출품하고 있어 포장전시회로서의 균형을 이루었다.

관람하고 싶은 출품회사, 출품물의 정보 또는

포장에 관한 상담을 각 분야의 전문가가 대응해 준다거나 입장등록 및 주요 회장 사무국에 영어 통역을 배치하여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한다든지, 국제적 상담장소나 휴식처의 제공 등 체계적인 전시 관리 능력은 국제적이라는 명성을 입증해 주고 있었다.

또한 동시개최 행사로 일본 및 세계의 포장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연을 하는 동경국제포장회의가 "Packaging the World with Tenderness in the New Century"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일본 포장기술의 최고수준을 다루는 일본패키징 콘테스트 응모작들을 특별회장에 전시하여 최근의 환경에 대응한 포장 및 디자인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일본 MH협회(Japanese Material Handling society)의 주최로 포장분야에 관련된 MH·물류기기를 모은 동경국제 MH전이 동경팩과 함께 개최되었다.

최근의 포장인들의 가장 큰 관심은 아무래도 환경이 아닌가 한다.

이번 전시회 또한 이러한 관심을 반영하듯 소재분야에서는 친환경적인 재료와 이와 관련된 제품들에 Point를 주고 있었으며, 폐기물 및 재성을 고려하여 특수필름류, 종이류 등을 사용한 것



▲ TOKYO PACK 2000 (사)한국포장협회참관단

이 주종이었다.

환경 호르몬 문제로 인하여 플라스틱 용기에 비해 비교적 제지를 이용하여 크기나 디자인 면에서 다양하고 고급스러운 제품을 많이 선보였다.

리필제품의 경우 우리나라는 대용량 위주로 용기를 생산하지만, 이번 전시회에서는 소형위주로 작게 만들고, 이에 리필용기의 파우치부분에 호스를 대신하여 플라스틱을 접어 삼각형을 만들 수 있도록 고안되어져 용기가 넘어졌을 때 내용물이 새지않는 기능을 부가시킨 제품이 눈길을 모았다. 완충제품도 스티로폼보다는 에어버블이나 종이를 이용하는 완충제가 우세한 편이었다. 이번 TOKYO PACK 2000은 특별한 신기술을 선보이지 않는 대신 기존 아이템이 아이디어를 더한 제품들이 많이 눈에 띄었다.

도요제관에서는 Steel을 이용한 용기를 출품하였는데 내식성이 우수한 Steel박의 내외면에 Polyolefin계 Film을 Lamination하고 특수 Press 성형법에 의하여 성형한 주름이 없는 금속 박 용기가 개발, 전시되고 있었다.

밀봉은 Heat Seal 방식으로 산소, 광, 수증기를 완전히 차단하기 때문에 내용물의 장기보존이 가능하고, Retort 살균처리가 가능하며 Steel박의 반강성 특성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내압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제품이다. 또한 맥주캔을 음료병과 같이 Screw Cap을 부착한 Bottle 형태로 개발, 기존의 원터치 캔의 단점을 개선·보완하여 장시간 내용물의 맛을 유지 보존 시킬수 있게 하였다.

Toppan사에서는 기존 재료(PET, NY Film)에 Ceramic, Alumina를 진공 증착하는 방법으



▲ 전시회에 출품된 용기 포장제품

로 코팅한 고차단성 필름("GL" Grade)을 개발하여 Retort Pouch, Lid, 음료 및 주류 포장등에 이용한 신제품을 선보였으며, 아직까지 완벽하진 않지만 Aluminium을 대체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고 친환경적이라고 발표하고 있었으며, 이 필름의 특징은 방습성, 산소gas 차단성, 보향성 등이 우수하여 고온다습한 기후에도 안심하고 사용이 가능함. 또한 투명성이 있어 속을 볼 수 있어 Sealing부위에 균이 침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M/C 메이커에서는 포장기계 출품과 더불어 다양한 형태의 제품과 갖가지 기능을 부여한 제품들을 동시에 선보이고 있었으며, 최근 새로이 설계한 기능을 부여한 제품들(Easy Open성, 편리성 및 내용물 쏟아짐 방지 등)은 성형공정에

서의 중요부분을 차폐시켜 외부에서 투명 상자 안에 전시하여 눈으로만 볼 수 있게하고 샘플의 외부유출을 차단하고 있었다.

아쉬운 점이라면 전시 행사가 예년과 다름없이 진행되어 특별할 것이 없어 보여, 날로 변화되어 가는 전시환경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았다.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포장 분야에서 뒤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렇다고 무조건 선진국이라고 해서 잘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그것은 수적인 차이와 그다지 크지않은 기술적인 면일 뿐 우리나라 포장회사나 포장인들도 선구자적인 자질을 갖추고 앞선 포장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보면 우리 포장의 미래도 밝다는 것을 느꼈다. [ko]